



정치 > 국방·외교

그라치아노 EU 군사위원장, JSA 방문... "한반도 이해하러 왔다"

메이ер 유엔사 부사령관·페르난데즈 EU대사 동행
서욱 장관과의 만남서 "EU는 한반도 평화 지지"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4-09 08:23 송고



지난 8일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 군사위원장(가운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트위터 갈무리)©뉴스1

방한 중인 클라우디오 그라치아노 유럽연합(EU) 군사위원장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8일 찾았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국제적인 맥락의 큰 이슈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 직접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내가 (JS

A를) 방문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JSA 방문엔 스텐트 메이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마리아 카스틸로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등이 동행했다.

메이어 부사령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EU 회원국과 관찰 내용을 공유하고, EU 지도부와 '방향키 점검'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페르난데즈 대사도 "국경 안보의 현실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반도에서의 대화와 평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을 봐서 좋았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 7일 방한한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서욱 국방장관과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만나 한반도 안보 정세와 한-EU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라치아노 위원장은 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EU는 한국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정책을 지지한다"며 "EU가 현재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 전략이 구체화하는 대로 한국과 구체적인 공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